

# 계군상태에 맞는 방역관리에 새로운 인식 가져야

취재/이창훈 기자

영 세양계농가가 대부분인 국내양계산업은 생산성향상을 통한 대외경쟁력제고라는 과제를 안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복합적인 문제점들로 인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생산성향상 저해요인 중에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것이 바로 질병문제인데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대단위 밀집사육이라는 양계고유의 특성 때문에 적절한 사양관리, 방역철저 등의 사전예방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일례로써 사전예방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백신접종은 양계산물 생산비 중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병아리를 건강하게 생산하여 공급해야 하는 종계장에서 더욱 철저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종계장을 방문하여 사양관리현황을 사실 그대로 정리하여 소개한 것이다.농장명은 무기명으로 하되 A, B농장으로 표기하였다.

이 A농장의 경우 자체 백신접종프로그램에 의해 충실히 백신접종을 하였고 31주령까지는 비교적 표준산

란곡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던 산란곡선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 36주령에서 41주령에 40%까지 급격히 산란율이 하락하여 강제환우를 실시한 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던 계군이 54주령 이후 다시 산란율이 저하하기 시작하여 백신역가를 측정하였으나 양호하였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채 산란율이 계속 저하하여 60주령때 도태한 경우이다.

이 B농장의 경우 몇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자체내에서 작성한 접종프로그램에 의해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다시 질병

표1. A농장의 산란곡선과 접종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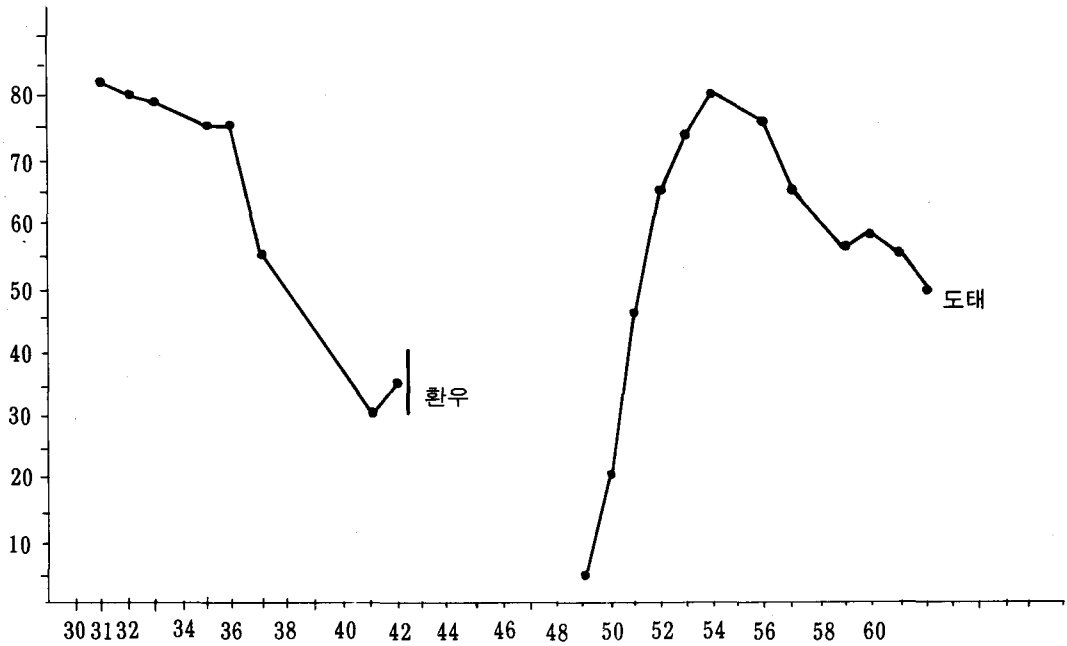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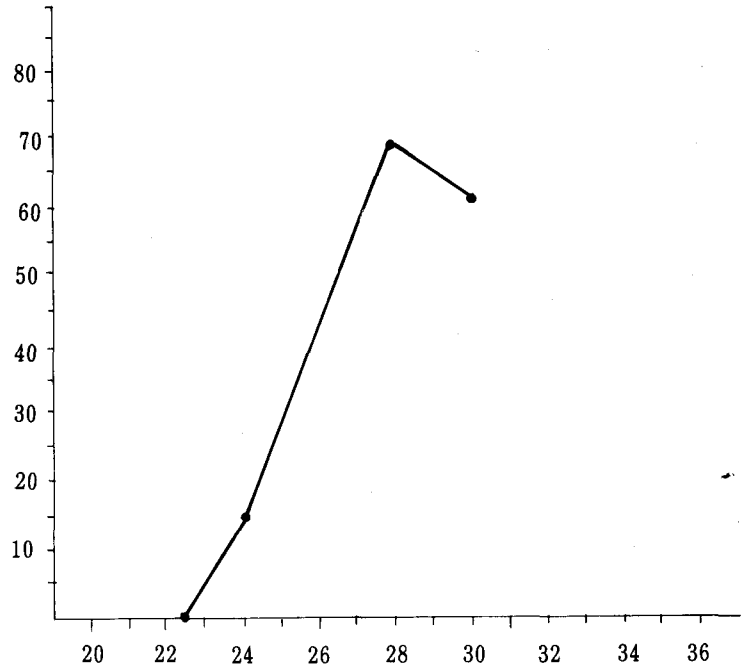


표3. B농장의 산란곡선과 접종프로그램

표2. A농장의 접종프로그램

일령	접종 방법
1일령	IB점안
16 "	IBD 음수
28 "	ND+IB음수
42 "	IBD 음수
49 "	ND+린코 주사
56 "	FP 쌍침
65 "	IB 음수
90 "	ILT 점안
105 "	ND+IB OIL
113 "	AE+FP
128 "	IBD OIL
140 "	ILT 점안
148 "	AE 음수



이 발생, 28주령 이후 산란율이 저하하고 있다.

표4. B농장의 접종프로그램

일령	접종방법
1일령	FP 단접
15 "	ND+IB 음수
23 "	ND+IB 음수
45 "	ILT 잠안
68 "	코라이자,ND사독 근육주사
85 "	MG사독 근육주사
101 "	AE, FP 음수췌침
116 "	AE 음수
131 "	IBD, ND, IB 오일백신
155 "	ILT 잠안

그런데 이 농장의 경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질병 발생 후에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산란성적이 회복되어 생산성에 큰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번의 경우에도 시간이 흐르면 회복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염 후에도 산란율이 회복되는 것은 백신접종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인것 같다고 농장관리인 임모씨는 예상하고 있다.

이 A,B 두 농장의 경우에서 처럼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종계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백신접종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지역차이와 계절차이, 사육환경차이와 개체특성차이 등으로 각 농장마다 다양하게 접종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시하

고 있고, 최근에 발생하는 질병의 양상 또한 다양하여 일선농가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질병에 의한 피해에 대해 양계경력 10년에 현재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3만수 규모의 육용종계 종란을 생산하고 있는 김모씨는 농장관리인으로 부터 출발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어떤 요인보다 양계업을 일종의 투기업으로 생각하는 농장주들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농장인부들에 의해 기인된다고 한다. 즉 현재 양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명감을 갖고 전업으로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사람들중에는 양계를 투기성 부업으로 착각,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양계업이 어디까지나 운에 의해 좌우되는 투기성부업인지라 투자규모가 작고 그에 따라 계사규모와 시설이 영세할 뿐 만 아니라 농장관리에 있어서도 농장인부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자신은 다른 사업을 하거나 근처 합동사 무실에서 허송세월을 보내

는 등 계사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백신접종을 하기만 하면 질병이 100% 예방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농장작업인원을 고용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양계쪽과는 무관한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단지 임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계군위생이나 사료조절, 환기관리, 급수조절 등 전반적인 사양관리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고, 이들 농장인부 중에는 농장주와 인척인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인척관계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경력과 지식을 갖춘 농장장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인사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휴일도 없는 농장관리와 열악한 농장조건, 이에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자기의견 무시 등으로 인해 조금만 조건이 좋은 농장에서 손을 뺄으면 그곳으로

옳기는 경우가 많은것이 현실 여건이다.

같은 지역에서 2만5천수 규모의 육용종계를 위탁사육하는 농장의 관리자인 고모씨의 경우 농장주가 자기를 뒷받침 해줄 작업인부 2명을 고용했으나 그중 한명은 고졸, 또 한명은 중졸인데, 이들중에 1명은 고등학교졸업 후 군대갈때까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온사람이고 또 한명은 건축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던 사람인 지라 사료량은 물론 환기 및 급수관리, 방역관리 등 전반적인 사양관리에 미숙하고, 위생관념이 희박하여 자신이 하루만 자리를 비어도 폐사가 발생할 정도라고 한다.

이와같은 농장인력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양관리가 부실해지고 이는 곧 전체생산성에 연결되어 생산성저하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백신의 취급과 백신접종시 사용하는 물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즉,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백신취급업체 중 일부

영세업체에서는 백신취급시 생독백신의 경우 4°C의 저온에서 보관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냉장보관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가정용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가정용 냉장고의 경우 보관용적이 작아 약품업체의 보유물량을 전부 수용할 수 없어서 일정양 이외의 나머지 백신은 실온에서 보관하였다가 냉장고에 보관하던 백신이 팔려나가고 나면 그때서야 실온에서 보관하던 백신을 냉장고에 보관 후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점을 감안할 때 백신의 효과도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백신접종시 사용하는 물의 경우 대부분이 수도물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도물의 경우 이를 정도 저장하였다가 사용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지하수의 PH와 성분함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하수는 무조건 좋다는 생각으로 아무곳에나 파이프를 박고 지하수를 뽑아 적부여부 검사

없이 사용하고 있어서 음수 백신접종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내 종계의 생산성 저하문제는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사양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결해야 될 계사내가 세균의 온실로 전락되어있어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올해들어 더욱더 심화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업으로 양계업을 하고있는 농장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농장관리인 채용시 경력자와 책임감있는 고학력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농장관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농장주 자신이 직접 방역관리나 사양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일지를 작성해가는 사고방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

